

2020년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학술대회

지워지지 않는 기억, 강요된 이름 : 창씨개명과 제국주의
Indelible Remembrance, Forced Name :
Chang Ssi Gae Myung (name change) and Imperialism

■ 일시 2020년 8월 14일 (금) 14:00 -17:30

■ 장소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104호, ZOOM 접속

* ZOOM 설치 방법

<https://zoom.us/download> 에서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를 내려 받음

<https://zoom.us/support/download> 에 접속하여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로 다운로드

* Zoom 회의 참가

<https://kookmin.zoom.us/j/92705263879>

회의 ID: 927 0526 3879

■ 후원 북악 법조 모임

■ 주관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학술대회 취지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30년의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생활양식과 시대정신,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특징짓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은 개인의 파편화,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과 토대는 인간이며, 인간은 민족이라는 집단단위에서 출발한다.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지역특성화인 世邦化(Glocalization)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도 '이름 강제'는 제국주의 시기의 유행처럼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름 강제'는 다양한 지역, 민족적 특성을 자국, 자민족 중심으로 일반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름 강제'의 분석을 통해 세계화 보편성 속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방화로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은 지난 시기의 경험과 책임뿐만 아니라 인류가 추구할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본 학술대회는 '이름'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사상과 산업 유형이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인간성 회복의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성명의 역사적 존재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재조명해 보는 것이 본 학술대회의 목적이다. 이는 새로운 성명 문화 구축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이름'은 사회적으로 개인을 타인과 구분하는 가장 원초적인 근거이자, 개인의 독자성, 고유성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또한 소속된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민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의 근거이기도 하다.

1870년 이후 1945년까지의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의 시대였다. 당시 전 세계의 80%가 소수의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식민지로 분할되어 있었다. 내선일체를 내세운 일제는 창씨개명을 통해 우리 민족을 일본 민족에 흡수, 통합하려 했다. 서구 열강 중 일제와 같은 식민지 직접지배 방식을 채택했던 국가의 경우 피지배 민족의 말살을 추진했다. 이러한 민족 지배를 위한 성명 변경은 식민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순수 게르만 민족의 통합을 강조하며 유대인의 성명에 특정한 표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명하여 '유대인이라는 낙인(烙印)'을 부여하였다. 식민지 민족의 동화를 목적으로 한 개명이나, 민족 분리를 목적으로 한 유대민족 개명이나 오랜 중국의 지배에서 몽골인들이 성씨를 잃어버린 사건들은 모두 개인의 인간성과 특정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야만적인 시도였다.

본 학술대회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자행되었던 '강제 개명(改名)', '강요된 이름'의 역사와 법제를 법학, 역사학, 정치학, 상호문화지역학 등 학제 간 융합 학문적 방식을 통해 비교사적으로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일제의 창씨개명을 비롯하여 독일 나치의 유대인 이름 강제, 1725년 몽골을 침략한 청나라는 몽골의 족보와 성을 폐기하여 혈연관계의 역사성을 말살하려 하였다. 이처럼 성명변경은 점령지에서도 자행되었다.

종래의 일국사적(一國史的) 접근에서 벗어나, 각 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강제 개명의 본질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데 이번 학술대회 개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강제 개명이 이민족 지배의 세계사적인 유형으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8월 14일

남윤삼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소장)

세부 프로그램

등록

13:50 - 14:00

ZOOM URL 접속
(한국, 독일, 몽골의 강요된 이름 관련 자료 슬라이드, 10분)

개회식

14:00 - 14:10

사회: 김영진(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연구원)
개회사: 남운삼 소장(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제 1섹션

14:10 - 15:40

■ 제1주제: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과 식민 지배 방식 비교 연구

발표: 이계형 교수(국민대학교, 역사학), 토론: 김성민 박사(전, 국가보훈처)

■ 제2주제: Steven lukes의 권력개념으로 본 창씨개명

발표: 김경래 교수(국민대학교, 정치학), 토론: 나 강 교수(국민대학교)

■ 제3주제: Монголчуудын хувь хэний нэр ба империализм 몽골인들의 개인 성명과 제국주의

발표: Дамбадаржаагийн Янжинхорлоо(Dambadarjaa Yanjinkhorloo) 교수 (몽골 국립대학교, 법학),
토론: Цогтоогийн Унурзаяа(Tsogtoo Unurzaya) 교수(국민대학교)

휴식

15:40 - 15:50

제 2섹션

15:50 - 16:50

■ 제4주제: The German State and its Jewish Citizens(1871-1945): Modern Administration and the Holocaust

독일과 독일계 유대시민(1871-1945): 근대 행정과 홀로코스트

발표: Brose Iris 교수(홍익대학교, 독어독문학), 토론: 남운삼 교수(국민대학교)

■ 제5주제: 일제 창씨개명과 나치정권의 유대인 이름강제: 성명변경법 비교연구와 전망

발표: 남운삼 교수(국민대학교, 법학), 토론: 김민섭 교수(국민대학교)

종합토론

16:50 - 17:30

폐회

17:30